춘천 성시신문

The Chun Cheon Holy City News

발행인 : 박 상 호

성 시 비 전

교회갱신 · 부흥 · 복음화운동
교회연합일치운동
새로운 도시 모범시민운동
세계복음화 기도운동

www.holycity.or.kr

2007년 1월 1일

(1998년 9월 15일 창간) 제98호

3. 은사에 따른 섬김과 협력운동
5. 청소년 대안교육을 모색하며…
6. 다음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9. 일어나 함께 가자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 놓으셨습니다.
그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한 인습에 묶여 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 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험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밖에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H.G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편지



이달의 말씀

이사야 43장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녕히 내가 광야에 길과 사막에 강을 내리니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

· 나라와 민족
2007년 새해에는 정치 경제 등 이 나라의 모든 지도자를 축복하시어 어려운 시대를 지혜와 정의로 변화시키며 경제 문화 교육의 새로운 장이 열리도록.

· 2014 평창 동계올림픽
강원도의 미래를 합박 열게 될 평창 동계올림픽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유치되게 하시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진행되는 알펜시아 계획들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 춘천의 발전
혁신도시, 강원외고 유치실패 등으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시고 도시를 변화 발전시킬 바른 전략과 대안이 제시되어 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 한국 교회를 위해
평양 대부흥 100주년을 맞이하는 2007년에는 먼저 교회가 기도와 회개로 새로워져서 위기 가운데 있는 사회에 희망을 주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이 땅에 다시 부흥의 봄길이 일어나도록.

· 1월 3일 신년교례회
새해를 맞으며 기독교연합회와 각 기독교 모든 단체가 한 자리에 모이는 신년교례회를 통해 서로 더 연합하고 협력하는 희망찬 2007년을 맞이하도록.

· 사랑의 나눔과 섬김
지역사회에서 소외당하고 고통 중에 있는 이웃들을 돌보고 섬기어 그들이 사랑으로 따뜻한 겨울을 보내도록.

신(편)입생 모집안내



이사장 김 주 환 목사



학장 이 준 일 목사

모집학과 및 응시자격

모집학과	과 정	응 시 자 격
신 학 과 (야간)	4년제	1. 고등학교 졸업이상 또는 동등자격을 갖춘자 2. 신앙생활 및 기정생활에 무흠한 자 3. 침례(세례)를 받은 자 4. 타 신학교 2년 이상 수료자 및 전문대 이상 학력소지자(단, 편입생에 한함)
목회학과 (야간)	3년제	
편 입	2년제	

※모집기간 : 2006년 12월 26일(화) ~ 2007년 2월 21일(수)
교무처 : (033)253-2796, 257-2740, 016-342-4812 FAX : 241-2741

본교는
복음주의 신학에 근거하여 오순절 성령운동의 기초가 되는 영성훈련과 학문적 이론을 통해 전인적인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사명자들의 많은 지원을 기다립니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순복음강원신학교



춘천시 교경협의회장
원 충 국 목사
제일감리교회

2007년을맞이하며!

춘천시 교경협의회(교회-교역자 및 평신도대표-와 경찰협의회)를 사랑하고 기도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기원하며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성시화운동의 1번지인 춘천은 2007년에도 전시민의 복음화와 평화롭고 질 높은 삶을 추구하는 성생의 바람을 일으키며 전진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교회와 경찰에 종사하는 전 가족은 더불어 헌신을 다짐합니다. 새해는 국가의 최고지도자를 선택하는 큰 과제와 일자리 창출, 서민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진로선택의 책임이 요구되는 해입니다. 지난 몇 해의 시국상황은 우리에게 민주시민의 선택의 책임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체득하게 해주었습니다. 이제 새해에는 오늘을 책임지는 성숙한 시민으로, 신앙인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도덕심 높은 사회혁신가로 교회와 경찰이 소리 없이 섬기는 일을 해야할 것입니다. 부족한 종을 여러모로 도와주셔서 보다 살기 좋은 춘천시를 가꾸는데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리며 새해에 여러분의 꿈이 현실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2007년 비전

먼저 춘천시 교경협의회의 정체성 회복에 주력하려고 합니다. 지역사회의 복음화와 지역 사회의 안녕과 질서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따라서 교회와 경찰이 협의하여 이루어야할 임무의 교감을 서로 인지하여 협력하는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격월로 모이는 월례회를 통하여 보다 교경의 현안문제를 심도 있게 나누고 기도해야할 문제점을 인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적, 인적, 물적 자원의 동원이 가능한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모색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연합 사업을 활성화하여 협력의 장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연합집회에 회원교회와 경찰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최선을 강구하고, 이때 모범 경찰 가족을 선정하여 표창하므로 격려와 복음전파의 활성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또한 경찰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화합과 가족적 분위기를 형성하여 전도의 계기를 마련하고, 친교여행과 회원확보 교경퀴즈의 발전체계를 모색하려고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은 교회와 경찰가족의 협력 속에서만이 가능합니다. 임원 여러분과 춘천시의 존경하는 목회자, 평신도지도자, 경찰간부 여러분들의 사려 깊은 지도와 편달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천시장로교연합회장
문 충 식 목사
화목교회

나는 자랑스런 춘천시민이다!

2000년 전 가장 훌륭한 자랑거리는 "나는 로마의 시민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새로은 한해의 시작과 함께 "나는 춘천의 시민이다"라고 자랑 할 수 있는 자긍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 자긍심은 자기 영광에 도취되거나, 자기만을 내세우기 위해 자기 관리에만 전념하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을 품을 줄 아는 사람이 자신이 하는 일에 만족 할 때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자기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자랑스런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보여주기 원하십니다. 새해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자랑스럽게 여기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장로교 연합회가 장로교뿐만이 아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아름답게 연합, 동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일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 도성의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박 넝쿨을 통해 요나에게 반문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이 춘천 도성의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아끼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가오는 새해는 모든 시민이 주께로 돌아오기 시작하는 변화의 해가 되기를 원하며, 이를 위하여 모일 때와 또한 흩어져 있을 때에도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는 연합회 활동이 되고자 합니다. 저 또한 춘천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로 맡은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신뢰를 회복하여 연합하는 즐거움과, 춘천시민을 기쁨으로 섬김에 주력하겠습니다. 단순한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닌 섬김의 목적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초대교회와 같이, 사람들에게 청찬받는 성도들로 인해 교회가 성장되며 춘천 도성이 성시화 되는 일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세상을 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자랑스런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자랑스런 춘천시민입니다!"라고 말 할 수 있는 한 해의 시작이 되었으면 합니다.



춘천직장선교연합회장
김 용 일 장로
소양성결교회

춘천의 모든 직장인을 그리스도에게로

직장선교는 한국교회의 꽃이요 열매입니다.

교회와 가정에서의 신앙생활이 직장과 사회 모든 분야에서 평신도 중심의 직장선교운동으로 시작된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한국교회의 기쁨이라 할 수 있습니다.

1990년 4월 17일 창립된 춘천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가 17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45개 직장 선교회의 일천여 회원들이 직장의 복음화와 춘천의 성시화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연합회 내에 8개 분과위원회를 조직 운영하고, 직장마다 선교회 개척을 위한 중보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2007년 새해에는 춘천의 많은 직장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하며 다음과 같은 행사와 계획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 2007년도 주요행사

- 열린찬양제(제7회) - 초교파적 찬양 예술제를 통한 기독문화 발전과 교제
- 구국기도회(제5회) - 춘천의 기도용사가 모여 공의와 나라사랑실천을 위한 금식기도
- 여호수아기도회(제3회) - 직장과 상가를 돌며 땅 밟기 기도와 노방전도, 환우전도
- 직장선교대회(제17회) - 창립17주년 기독직장인과 가족 총동원 선교대회
- 선교찬양대회(제13회) - 춘천성시화주간 직장선교회별 찬양대회
- 직장인정오예배 - 92년 11월 시작, 매월 마지막 화요일 12시 예배(동부교회)
- 직장선교예배 - 각 직장선교회별 매주 또는 격주로 선교예배

2. 주요추진 사업계획

- 직장선교회 순회예배 - 직장의 복음화를 위한 방문예배 및 중보기도
- 직장선교회 개척운동 - 춘천의 모든 직장의 복음화를 위한 방문 선교회 개척 추진
- 직장선교주일 제정 - 모든 교회와 연합하여 직장인 총동원주일
- 직장선교대학 개설 - 직장인 복음화를 위한 제자훈련 및 전도 지도자 과정(12주)
- 직장에서 바르게살기 실천덕목운동 정착 - 기도로 하루업무 시작하기, 만나는 사람 예수님처럼 모시기, 업무능력 인정받기, 간소한 식사하기, 동료에게 예수전하기, 내가 먼저 인사하기, 어려운 동료 돌아보기, 공공 물건 아껴 쓰기, 공의는 세우고 부정은 멀리하기, 내가 있는 곳에 화평이루기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일터에서 열심을 다하며,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기쁘게 감당하며, 복음을 널리 전하기를 소원합니다.

제시뉴욕 · 레모네이드
럭셔리한 아름다운 멋
결혼예복 · 숙녀복 전문
패 · 션 · 리 · 더 제 시
모녀가 함께 입는 명품
멋은 연예인이 즐겨 입는 명품
제 시 뉴 욕 모 델 명
대표 전 순 천 집사(순복음춘천교회)
☎ 252-7262
위치 조양동 신한은행강원본부 앞

"어린이 마음마다 하나님 사랑 가득"
C.C.C. 어린이집 원아모집
♣ 4 · 5 · 6 · 7세 연령별 선착순 모집
♣ 저소득층 자녀, 목회자 자녀, 형제 감면 혜택
♣ 정규반(오후2시30분까지), 종일반(오후6시까지)
♣ 특기교육: 영어(매일교육) · 피아노 · 미술 · 체육 · 음악 · 수학 · 과학특별교육 · 놀이학습지도
♣ EQ발달을 위한 다양한 학습활동 · 프로젝트 수업
♣ 자연학습장 운영, 실내외 놀이터, 넓고 쾌적한 장당
♣ 어린이 눈높이의 신앙교육(주1회 어린이예배)
※ 신앙과 양심의 표준인 성경말씀의 교훈을 따라 기도의어머니회의 전문적인 전인교육을 실시합니다.
◆ 교육문의: 033)255-5776, 010-9533-5776
◆ 위치: 춘천시 후평2동 C.C.C. 아카데미하우스 내(한신아파트 옆)

춘천성시화! 은사에 따른 섬김과 협력운동

2007년도 춘천기독교연합회 회장으로 섬기게 되신 이원호(소양성결교회)목사님과의 인터뷰



이원호 목사는 1996년 춘천기독교연합회와 춘천성시화운동본부가 태동하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셨던 분이다. 또한 성시화와 관련한 최초의 논문인 '춘천성시화를 위한 지역교회 역할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논문'(목회학 박사학위 논문, 1998년)을 통해 은사에 따른 섬김과 협력운동을 주장하셨다. 그가 섬기고 있는 소양성결교회는 춘천성시화에 대한 비전을 이루기 위해 '예수사랑선교회'를 창립(1996년)하여 가난하고 낮은 자들을 섬기러 오신 예수님의 정신을 본받아 실천하며 장애우들의 친한 벗이 되어오고 있다. 춘천성시화와 21세기 한국교회의 새로운 모델이 되고자 소원하는 그의 비전과 소양성결교회의 힘찬 맥박소리에 귀를 기울여보자.

2007년도 춘천기독교연합회 회장으로서 부활절과 10월 선교대회와 관련에서 구상하고 계신 계획과 비전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저는 기독교연합회 회장으로서 두 가지 목표에 집중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춘천시민들을 전도하는 일이고, 두 번째는 춘천시민들과 함께 하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부활절과 10월 선교대회는 이 두 가지 목표를 이루는데 도움이 되도록 계획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부활절 행사로 십자가행진을 하였는데, 저는 이 십자가행진을 한번 성경대로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금요일 저녁 6시 이후에 춘천 시내를 통과하는 십자가행진을 하려고 해요. 그래야만 부활절이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십자가행진을 하면서 춘천시민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알리고 증거하고 싶습니다. 또한 10월 선교대회는 춘천시민과 함께 하는 선교대회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일반 시민들에게도 잘 알려진 장경동 목사님을 모시고 전도 및 부흥집회를 가지려고 해요. 오전에는 춘천시의 후원 하에 일반 시민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주부대학 등과 같은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실행할 계획입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춘천의 모든 교회가 춘천시민들을 전도하고, 춘천시민들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도 각 교회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과 은사를 따라 섬겨 전문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소양성결교회에서는 '예수사랑선교회'를 통해 가난하고 낮은 자들을 섬기면서 춘천성시화를 이루기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수사랑선교회'를 소개해 주신다면.

'예수사랑선교회'는 춘천성시화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교회에 맡겨주신 영적사명을 감당하고자 창립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수사랑선교회'는 1996년에 창립되었어요. 춘천성시화운동의 역사에 있어서 1996년은 매우 중요한 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춘천성시화를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춘천기독교연합회가 창립되고 이어서 춘천성시화운동본부가 상설기관으로 창립되었습니다.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창립에배를 저희 교회에서 드렸어요. 우리교회에서도 온 성도들과 함께 춘천성시화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놓고 많이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강원도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계획하던 "재가 장애인 연말 위로 행사"에 적극 협력하게 되었지요. 이 행사를 통해 저와 우리 교인들은 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소외감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소외당하는 장애인 형제자매들을 섬기는 일이야말로 춘천성시화를 위해서 우리교회에 주신 사명으로 확신하게 되었고, 좀 더 계획적이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예수사랑선교회'를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춘성성시화와 관련하여 최초의 논문- '춘천성시화를 위한 지역교회 역할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목회학 박사)-에서 '예수사랑선교회'의 사역을 연구, 소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천성시화에 대한 비전과 구체적인 전략을 말씀하신다면.

이 논문은 우리 소양성결교회의 장애인선교회인 '예수사랑선교회'의 사역을 좀 더 깊이 연구하고 발전시키고자 쓴 것입니다. 춘천성시화는 영혼구원을 위한 전도사역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춘천시민을 구원하는 전도사역을 중심으로 하여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말씀의 능력으로 실제적으로 임하도록 해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고, 교회는 점점 성장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인 사회는 점점 더 어두워져 간다고 하면,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성시화는 총체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해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춘천시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에 따라 적어도 한 영역에서 전문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교회는 정치영역에서, 어떤 교회는 문화영역에서, 어떤 교회는 선교영역에서 교회의 역량과 사역을 집중해 전문가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물론 이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해요. 한 가지 영역과 분야에 교회적 역량과 사역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그 외 다른 영역을 무시하고 소홀히 해도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교회의 본질적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 선교와 구제, 교육 등의 사역을 소홀히 하고 문화나 정치영역에만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기본적으로 잘 감당하면서도 각 교회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과 은사를 따라 섬겨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은사와 사명이 바로 장애인들을 섬기는 것이라고 저와 우리 교인들은 확신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다른 교회들이 자기 교회에게 주신 은사를 잘 개발하여 전문가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연결시켜 성시화를 이루실 것입니다.

소양성결교회는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로서의 모델이 되고 있다. 교회 개척에 대한 소신과 앞으로 교회 개척계획을 소개해주세요.

교회개척사역은 성시화에 대한 저의 신념과 우리 교회의 철학으로 볼 때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 교회가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다양한 사역을 함께 협력해서 이루어 나갈 많은 교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소양교회는 장애인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저와 우리 성도들은 봄내호스피스 사역에 사명이 이주호 목사를 중심으로 소양제일교회를 개척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현재 소양제일교회는 말기 암환우들을 위한 봄내호스피스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호스피스 병원을 건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듣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힘껏 도울 생각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강북지역에도 춘천성시화를 위해 은사에 따라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를 개척하고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강북지역에 개척하는 교회는 훨씬 수월합니다. 이미 개척하여 자립한 소양제일교회와 협력하여 세울 것이기 때문이죠. 교회의 사명은 대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를 분가 개척하여 사회 구석구석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본질적 사명이라고 확신합니다.

현재 소양교회가 관심 있게 추진하고 있는 비전을 소개해 주세요.

저희 교회는 지난 9월에 2007년도를 향한 비전 3333운동을 선포하였습니다. 비전 3333운동은 3000명의 예배자, 300명의 평신도지도자, 30명의 국내외 선교사파송, 3개의 지교회 개척운동입니다. 교회는 항상 시대의 변화를 영적으로 분별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해야만 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매우 혼란스럽고 총체적 위기 가운데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회를 바라보며 통탄합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 성도들이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사회의 위기는 바로 교회의 영적 무능력의 필연적 결과라는 것입니다. 기도와 회개로 교회가 먼저 새로워져야 희망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은사에 따른 섬김과 협력운동으로만 춘천성시화는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2007년 춘천기독교연합회 회장으로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욱 겸손하게 섬길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일시 : 2006년 12월 23일
장소 : 소양성결교회
진행 : 조영춘
글정리 : 정재호 /사진 김미경

성시화를 시작한 춘천, 축복의 도시로 거듭나야 합니다!

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조영춘 목사

춘천, 참된 영적 부흥과 함께 살기 좋은 도시로의 실제적 변화가 믿음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2006년 선교대회를 통해 우리는 춘천의 한 교회운동을 비전으로 잡으셨습니다. 이 한 교회 운동은 교회의 연합과 하나 됨이 목표입니다. 그러나 신학적인 차이, 교단간의 차이, 크고 작은 교회의 갈등을 극복하고 이 기심을 버리고 연합을 이루지 못한다면 이 거룩한 도시에 대한 꿈은 그림의 떡이 될 것입니다.

이에 기도하는 일에서부터 하나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주님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 감람산에 모여 있던 500여 형제들에게 먼저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여 예루살렘을 정복하라고 강력하게 명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도시는 기도하는 이 근본적인 일부터 다시 시작하여야 할 것입니다. 목회자들도 기도하고 모든 성도들도 모든 영역에서 기도의 연합을 이룬다면 이 춘천은 부흥의 감격을 한반도에 전하는 생명의 도시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 예루살렘교회는 경제 문제에 해답을 줄 수 있는 영적 경제공동체를 만들었는데, 우리 춘천도 성경의 모델을 따른다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같은 축복의 도시로 변화 될 수 있습니다.

하나 된 교회 안의 모든 기업인들이 예루살렘과 같은 경영 공동체로 모여야 합니다. 이에 2006년에는 우리 교회들 속에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던 기업들을 하나로 묶는 첫 작업을 하며 약 2000개의 기업들을 모아 하나의 책자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 모인 모든 경영인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독교적 경제원리인 유무상통 하나 됨을 통해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데 힘써야 합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이보는 일에 앞장서고 차세대를 위한 교육에 힘쓰며 선교의 발판을 만드는 일에 직접 참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기독교연합회와 성시운동본부는 5% DC운동의 일환으로 멤버십 카드 활용을 통한 연합이 경영공동체를 이루는 일에 적합하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직접 카드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은 약6%의 적립금을 되돌려 받아 경제적인 실익을 얻을 수 있고 믿음의 기업들을 이용함으로 향토기업들을 살리는데 앞장설 수 있습니다.

또한 향토가맹기업들은 성도들에게 참된 섬김과 믿음의 교제뿐만 아니라 건강하고 바른 경제문화를 지향할 수 있고 다른 시민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성시본부를 중심으로 차세대 지도자들을 양육하며 기독경영아카데미와 기독최고 경영자코스를 개발교육하고 각 기업체중의 모범업체를 우수향토기업체로 선정하여 그 우수성을 홍보, 활용할 수 있게 되리라고 봅니다.

이런 경영 공동체를 통해 토종기업들이 건강하게 되어 번창하도록 교회는 더욱 기도할 뿐만 아니라 부흥을 이룰 수 있으며 선교단체들을 공통으로 후원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경제공동체가 춘천이 모델도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교회는 기도하고 모든 기업일선에 뛰는 경영제사장들이 하나 되어야 합 때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이 땅에 이뤄지도록 앞장선다면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인재한국 평생교육원은 어떤 곳인가?

인재한국평생교육원 원장 김 성 호 목사

21세기 이후의 세계는 영성의 시대, 사상의 시대, 공존의 시대, 지식 시대, 다원화 시대, 기술문명의 시대 등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표현된다. 이 표현들의 뒤에 흐르고 있는 중심 가치는 정의사회, 인간존중, 인류평화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사랑의 능력과 실력을 겸비한 인재이다. 인재한국 평생교육원은 이러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 주력하고자 한다. 우리 지역의 숨은 인재를 발굴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달란트와 재능을 개발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성공적인 인생을 설계하는 데 바른 길잡이가 되려고 한다.

본원은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학교교육 위주의 교육법이 폐지되고 '사회교육'과 '학교교육'이 구분된 교육기본법(법률 제5437호)이 제정되어, 평생교육법(법률 제6400호) 사회교육법(법률 제3648호) <제2조1항, 제2조2항>상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교육인적자원부 등록 '평생교육단체'이며, 시민사회단체 부설 춘천교육청 등록 제3호인 평생교육시설로서 평생교육 실시권을 갖고, 지역사회를 위한 '열린교육 사회' '평생학습 사회'를 건설하여 '신뢰하는 사회' '조화로운 사회' '발전하는 사회'를 이룩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활동하고 있는 "인재한국 평생교육원"이다.

평생교육의 영역은 **1.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 및 교양교육 2.지식, 기술의 변화에 대응하는 직업기술교육 3.개인적인 취미 여가교육 4.시민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교육 5.기타 학교교육을 제외한 조직적인 교육활동 6.하나님 나라 건설의 일꾼을 세우는 일**이다.

본 교육원에서는 사회복지분야 프로그램으로 '노인(케어)복지사, 요양(간병)보호사' '심리상담사' '가정, 성폭력 상담사' '장례지도사' 등의 자격증 반을 운영, 국가복지정책의 시행에 따라 일선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또한 국가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길도 안내하고 있다. 일반교양분야 프로그램으로는 '리더십개발교실' '대체의학요법교실' '독서인재개발교실' '레크레이션교실' '작곡교실' '성악교실' 등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새로운 과목들이 계속 개설될 예정이다.

모든 프로그램 운영의 최고 목적은 교회 지도자들과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고 교회의 부흥과 사회적 책임을 건강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데 있다. 본원의 주인은 이 지역 모두이며 요람에서 무덤까지 누구나 언제든지 와서 교육하고, 또한 배울 수 있다.

상황버섯 · 상황버섯 · 동충하초
늘푸른상황버섯농장
대표 김 규 진 권사
(제일감리교회)
Tel. 080-322-3232 H.P. 019-323-7200
준천성시화운동본부

쌀 할인 전문매장
쌀 맛 나는 세상
차 영 철 · 이 태 영 집사
(주향교회)
☎ 033) 261-3333 위치: 소양 2교 건너 버스종점 앞

청소년 대안교육을 모색하며…

방과 후 대안학교(독서스쿨)



1. 무너지는 가정과 교회교육

청소년기의 자녀를 둔 부모라면 누구나 자녀들의 인격이나 태도에 대해 깊이 우려하게 될 것이다. 과거에 비해 신체적으로는 월등하지만 정신적인 면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드러남을 보면서 난감해 하는 부모들이 한 둘이 아니다. 가정 안에서 기본적인 예의나 범절이 무너진지 오래이다. 말과 행동이 도를 넘어서서 부모를 폭행하는 경우까지 나타나기도 한다. 이는 오로지 입시라는 목표만으로 가정과 학교에서 교육한 결과일 것이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는 어떠한가? 여러분의 교회 안에 중고등부 학생들을 한 번 바라보라. 과연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감격하는 청소년들이 얼마나 될까? 들론 예배에 참석하고, 성경공부를 하며, 세례를 받고, 성가대 봉사를 하는 등 겉으로 보기에는 별 다른 문제가 없어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잠언 14:12의 말씀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을 가고 있지는 않은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사실 교회교육은 가정교육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없다. 따라서 가정교육이 무너지면 교회교육은 자동적으로 무너지게 된다. 더구나 한 주간에 한 번 만남으로 무슨 영향력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학생들을 관리할 방법이 없는 게 사실이다.

2. 좋은 시스템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건 아닌데?"라고 생각하며 이런저런 시도를 안했을 리가 없다. 그러나 하면 할수록 오히려 자녀와의 관계만 악화될 뿐 아무런 진전이 없어서 포기 아닌 포기를 했을 것이다. 코앞에 있는 입시를 생각하며 자녀가 더 비뚤어질까봐 적당한 선에서 포기하고 손을 떼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사정은 교회도 마찬가지이다. 학기 중에는 엄두도 못 내고, 두 번의 방학 중에 캠프나 수련회를 통해 다잡아 보려고 해보지만 역시 별반 효과가 없다. 학생들은 이미 교회 내의 모든 프로그램을 식상해하고 있으며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그들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

과거에 어른들이 '남자는 군대를 갔다 와야 철이 든다'는 말을 자주 하셨다. 그렇게 부모의 속을 썩이던 망나니도 군대를 다녀오면 사람이 되어서 돌아온다. 어떻게 군대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 이것이 본인이 주장하고자 하는 시스템의 힘이다. 부모가 개별적으로 하려고 하면 갈등이 심화되고 학생이 스스로 하려고 하면 쉽게 포기하지만, 시스템을 통하여 하면 훨씬 효과적이다.

여기에 본인이 경험한 두 가지 사례를 들겠다.

1) 방과 후 공부방

지금부터 7년 전 우리나라가 IMF로 허덕이고 있을 때에 수많은 가정들이 깨졌다. 그때 교회 주변의 깨진 가정 아동들을 모아서 방과 후 공부방을 열었다. 정서적으로 상처받은 아이들은 산만했고, 거칠고 난폭하기까지 했다. 옷을 입은 채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등 정말 야생마 같은 아이들이었다. 공부방의 책상과 기물을 파손하는 것은 다반사였고 서로 욕하며 싸우는 일이 허다했다. 이런 아이들이 방과 후 공부방의 시스템을 적응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렸다. 매주 정기적으로 책을 읽고 글을 쓰고 발표하면서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미술치료와 상담치료를 통해 정서적으로도 안정되었다. 그 후 토론과정을 통해 자기들 스스로 규칙을 세우고 실천함으로써 생활은 변화되어 갔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자녀답게 공부방과 교회에서 만나는 어른들에게 정중하게 인사하기, 다른 사람을 위해 신발장에 신발 정리하기, 상스러운 말 삼가기 등 이런 규칙을 세우고 이를 어길 때는 스스로 벌칙도 받았다.

2) 방과 후 독서스쿨

공부방 아이들이 독서를 통해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몇 년 전부터 중고등부 학생 수련회를 독서캠프로 열었다. 독서캠프도 수련회와 마찬가지로 부모와 교사의 강요에 의해 억지로 참여하였다. 그러나 3박 4일의 과정을 마치고 수료식 때, 그들의 감동어린 글은 교사와 학부모의 눈시울을 붉게 하였다. 이런 결과를 보면서 중고등부 교회교육의 대안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방과 후 독서스쿨을 시작하게 되었다.







학교 공교육의 빈틈이 아마도 독서교육과 인성교육이라고 생각한다. 이 빈틈을 채우려는 시스템이 방과 후 독서스쿨이다. 매주 책을 통해 가치관을 정립하고, 자기관리학습과 비전학습을 통해 인성을 회복하는 시스템이다. 그밖에도 찬양학습, 멘토학습, 인터뷰학습, 영성학습 등을 통해 훌륭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기초를 준비하게 된다. 이 시스템의 핵심은 자기주도학습이다. 비전과 인성을 심어주면 자기 스스로 자기를 관리하며 자기 스스로 학습을 하게 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현재 9명의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이 6개월간의 기본 과정을 마치고 학습결과물을 제출하여 심사를 받고, 또 본 과정에 들어갈 때 엄격한 면접시험을 치렀다. 어떤 학생은 자신이 떨어질까봐 눈물을 흘리며 호소하는 모습을 보았다. 어리지만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현재 스클 학생들은 컴퓨터 게임을 일체하지 않으며, 무절제한 텔레비전 시청과 인터넷 서핑을 스스로 절제하고 있다. 이런 변화는 시스템을 통해 가능한 것이다.

3. 교회가 하나님의 훌륭한 인재를 길러내야 한다.

우리는 "가서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 뒤돌아보아야 한다. 과거 인물을 길러냈던 한국교회가 지금은 어떤 사람을 키우고 있는가? 현재 교회는 이 사회를 이끌어 가는 리더를 키우고 있는가?

방과 후 독서스쿨의 꿈은 "교회에서 리더 인재를 키우는 일"이다. 이것이 출발점이다.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좋은 시스템이 평범한 사람을 인재로 만들게 된다.

인간의 전인성(체성, 감성, 지성, 관계성, 전문성, 지도성, 영성)을 개발하는 학습시스템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인재는 인격과 비전과 실력을 갖추어야 한다.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인류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리더를 길러내야 한다.

교회는 이미 인재를 키울 수 있는 많은 인프라가 준비되어 있다. 주일만 사용하는 공간을 이젠 매일 매일 인재를 키우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교회에는 많은 인적 재원이 준비되어 있다. 실력있는 청장년의 자원들이 있다.

세상에는 실력이 뛰어난 사람은 많으나 훌륭한 인격과 탁월한 비전까지 갖춘 사람은 극히 드물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인재, 인류문제를 해결하고 이 땅에 사랑을 실현하는 인재를 반드시 교회에서 양성해야 한다.

[편집부 최영조]

자격증대비를 위한 자격취득 특별과정 모집안내

21C 복지 사회 건설의 국가정책에 맞추어 이 시대 가장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민간 자격증도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육청에 등록된 인기 시설에서 취득하셔야 보호를 받습니다. 많은 수 있는 본원에서 수료증과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후회 없는 결정이기 희망 합니다. 홍보를 위한 연간 계획표를 마련하였습니다. 기억하시고 참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사회복지분야 자격취득과정 모집안내

과정명	요일	강의시간	정원	입학자격	특전	총수업
노인(케어)복지사	월/화	오후 6시~9시	25	건강한 남/여 58세 이전	수료후 자격증 취득 요양원, 노인병원 실버타운, 종합병원	15주
요양(간병)보호사			20	학력제한 없음, 2급		
심리상담사 2급	화/목	오후 6시~9시	20	고졸이상,상담전문가로 활동하실 이	수료후 자격증 취득	15주
성폭력 상담사	목	오후 6시	15	전문대졸 이상 성폭력상담소 운영	수료후 인증서 (자격증)교부	64시간
가정폭력 상담사	목	오후 6시	15	전문대졸 이상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수료후 인증서 (자격증)교부	100시간
장례지도사 2급	목	오후 6시	30	장례업무 전반 관심 갖고 활동할 이, 종교계지도자	수료후 자격증 취득	15주

전문학사 사회복지사 2급 보육교사 2급 — 고졸 및 검정고시자 / 2년 4학기 졸업 후 신문학사수여, 자격증 취득
전문대졸 이상 / 1년 2학년 이수 후 자격증 취득, 선공10, 선택4 과목
사이버/ 디지털 대학교 연계 On-Line수업, 학비 저렴, 장학혜택 많음

※ 긴급구인※ 복서교사 모집~ 초대졸 이상, 만30세 이하의 남녀로 담임목사의 추천을 받아 2개월 과정의 교육 수료 후 본 교육원에 전원 취업(문의 011-9797-4217)

■ 일반분야 모집안내

과정명	정원	요일	수업시간	강 사	특 전	총수업
리더쉽 개발	20	화	오후 6시~8시	김남현 박사 전 계명대학교 경영대학원장	과정 단계별 수료증 수여(1, 2, 3년제)	10주
대체의학 임민사요법	25	토	오후 2시~5시	박찬웅 교수 포항대호 건강협회 이사	기준한 수료 후 자격증만 편입	10주
독서인재 개발교실 (아가페이)	30	목/금	(오후반) 오후 7시~10시 (오전반) 오전 9시~12시	최승한 교수 아가페여 인재개발원 최성원 교수 아가페여 인재개발원	수료 후 자격증 취득 (총금 24시간)	8주
레크레이션 교실	30	토	오후 2시~5시	정진원 교수 강원레크레이션 협회장	수료후 자격증 취득	30시간
성악교실	남녀 각10명	목	오후 2시~4시	박명식 교수 (강원대) 박명훈 교수 (한림대)	과정 단계별 수료증 수여	40시간
색국교실	10	목	오후 6시~7시	김정택 교수 춘천교육대학교, 강원대학교	과정 단계별 수료증 수여	40시간

※본 사항에 대한 입학여부 조정 및 변경 있을 수 있음. 정원70%가 충원되지 않으면 과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본원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1통, 이력서 사진4매(3×4)
●모집기간: 2006년 12월 1일 ~ 2007년 1월 5일까지(오전9시 ~ 오후5시)
●개강일시: 2007년 1월 8일(월) 오후 5시 30분
●문 의 처: 본원 사무실(춘천 CBS 3층) 033-241-6601~2, H.P:011-372-9100, 016-411-1416
교육인적자원부 등록 평생교육단체, 평생교육시설

인 재 한 국 평 생 교 육 원 원장 김성호 목사 부설장권영식 목사

탐방 I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의미 있는 교회탐방순서로 사암교회(최상도 목사)편입니다

사암교회는 지난 1989년 5월, 춘천중앙성결교회(윤천중 원로목사)의 지원과 어린이전도협회, IVF 등의 적극적 후원과 협력 속에 성장해온 교회이다. 춘천성시화의 작은 모델이 되는 교회, 평화에수마을 공동체 건설을 기치로 사역하고 있는 사암교회는 1996년 봄, 최상도 목사의 부임 이래 여러 가지 신선한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함께 들어보자.

사암교회의 시작

사암교회는 자발적 평신도들에 의해 춘천에서 시작된 몇 안 되는 복음적인 교회이다. 일찍이 집사였던 송융남 장로(현 라오스 선교사)와 심경자 권사, 신성균 집사(현 춘천열린교회 목사), 조은제 집사(현 일본선교사) 등이 전도 열정이 타올라 복음의 불모지였던 사암리지역과 학곡리지역 선교를 위해 가가호호방문하며 전도하던 중 개척되었다. 춘천중앙성결 교회의 지원으로 교회 건물을, 그리고 IVF 멤버들의 참여와 어린이전도협회의 적극 협력으로 의미 있는 사암교회가 시작되었다.

최상도 목사

현재 사암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최상도 목사는 4대 전임목회자로 1996년에 부임하였다. 경기도 의정부에서 출생한 최 목사는 선친께서 직업군인이었던 터라 여러 도시를 전전(?)하다 선친의 퇴임 이후 춘천에 정착하면서 최 목사와 춘천의 인연은 시작되었다. 춘천 구세군교회에 출석하던 친구를 따라 처음 교회생활을 접하게 되었고, 첫날부터 감격적으로 예수님을 인생의 구세주로 영접하게 된다. 이후에 누님을 따라 간 한국대학생선교회(CCC)의 고등부와 대학부에서 훈련을 받았고, 대학 중반부 이후에는 IVF의 문서선교를 통해, 그리고 기독교세계관을 연구하는 춘천기독교학문연구회(대표: 허문영 박사)의 창단 멤버와 초대 간사로도 섬기게 되었다. 서울 신학대학원 졸업 이후에는 김진홍 목사가 설립한 두레연구원의 연구원으로 섬기기도 한 것이 최 목사의 주요 경력이다.

이중 비전

사암교회의 두 가지 핵심 비전은 "춘천 성시화와 평화에수마을 공동체의 설립"이다. 춘천 성시화는 춘천의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염원이기도 하지만 일찍이 차세대를 중심으로 1994년에 일어났던 I북음과 춘천94대회I의 회원교회로 최 목사와 사암교회가 참여한 바가 있어 그 열망이 더욱 크다 하겠다.

또한 평화에수마을의 꿈은 최 목사의 두레마을 수학경험과 춘천기독교학문연구회 공동체의 꿈을 계승한 측면이 강하다 할 수 있다. 사암교회는 춘천 등내면 S지역에 학교형 공동체를 설립하고, 인근지역을 복음화 하여 사람과 자연, 자연과 문명이 함께 어우러지는 환경회복마을, 선교사들이 마음껏 쉬어갈수 있는 선교촌, 노년층과 젊은 층이 함께 어우러지는 전천후 세대마을, 라브리와 예수원 같은 영성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꿈을 간직하고 있다.

"춘천 성시화와 평화에수마을을 꿈꾸는 교회"

더 큰 꿈을 향해

사암교회는 지난 11월에 동내면 사암리의 "마을 교회"에서 다음 세대의 부흥을 준비하는 교회로 거듭났다. 그동안 사암리에 몸담고 있었던 사암교회는 주변지역의 재개발과 도시계획선의 문제가 큰 근심거리였다. 교회가 도시계획선 안에 포함된 까닭에 교회건물의 증축과 개축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다. 2년여에 걸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교우들의 진지한 립레이 기도와 중보기도를 통해, 현재의 거두리로 이전하게 된다. 그리고 최 목사가 기도 중 응답받은 "사와"(佐花 기다립사, 번성함 임)이란 이름으로 사암교회(이전 이름의 뜻: 모레와 바위)는 다시 거듭나게 되었다. "사와"이란 일찍이 세례교인이었던 다산 정약용 선생(세례명: 요한) 의 마지막 호로서 "다음 세대의 번성을 기다린다"는 의미



있는 뜻을 담고 있다. 이전 이후 교회는 더욱 전략적으로 기존의 농촌공동체 선교와 함께 도시선교의 두 날개를 달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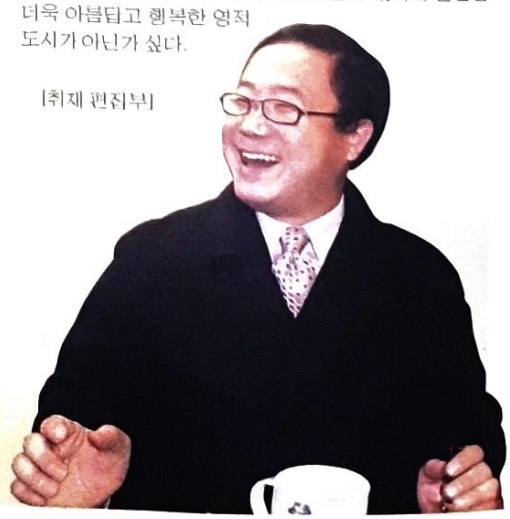
최근 전도부와 신설된 문화 선교부를 중심으로 도시 전도전략을 새롭게 수립하여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도서대여 사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무료급식 사랑의 식당 사업", 부부들을 위한 "건강댄스", 신세대를 위한 "기독 명상센터" 등을 계획하고 있다. 아울러 해외선교의 확충을 위해 배가예산 수립과 4대선교지역의 집중 계획을 수립하였다.

2007년 표어를 "신행일치"(信行一致, 믿음과 행함의 일치된 삶)로 정한 사암교회와 최상도 목사, 김수정 사모, 그리고 송융광, 최명용, 이종대, 김우식, 성기권, 오일남, 현제용 안수집사 등 아름다운 이들이 있기에 춘천은 더욱 아름답고 행복한 영적 도시가 아닌가 싶다.

[취재 편집부]







앤투어 ntours
• 할인 항공권 전문
• 전세계 호텔 예약
• 여권 및 비자 업무
• 국내 · 외 여행 일선 (수학 · 졸업 여행)
• 배낭여행 · 어학연수
• 전세 버스 일선
• 신혼여행
• 유로패스/JR패스 예약 및 발권
• 해외선교 후원
대표 김 지 현 집사 (춘천동부 교회) 011-9057-3946
TEL:244-7400 도청 밑에 위치

SSO TOTAL DESIGN
쏘인테리어
교회건축연구소
대표권 승 갑 장로 (제일장로교회)
033-242-5573 / 018-330-0433
1 OFFICE : 춘천시 퇴계동 891-1 대원B/D 7F
2 OFFICE : 춘천시 효자3동 607-2
STUDIO : 춘천시 서면 당림 1리 81-5

| 역사자료

강원도 교회 창립 약사 (略史 5)



강원기독문화연구소 대표
김 기 태 장로
(춘천중앙감리교회 원로)

1. 귀츨라프(K.gutzlaff) 선교사와 토마스(R.J.Thomas) 목사(1832년~1885년)



최초로 내한한 '귀츨라프 선교사'와 최초로 복음이 전해진 '고대도' 전경

대한제국 백성에게 최초로 복음을 전한 이는 누구일까?

1832년(174년 전) 7월, 우리나라 서해안 고대도(古代島) 섬마을에 와서 한문 성서를 배포하고 순조임금에게 통상요구서와 성경전서 2권을 보내며 무역과 선교를 요구한 런던선교회 소속 중국선교사 '귀츨라프'라고 하여야 한다. 비록 정부의 승낙을 받지 못하고 돌아갔지만 그는 스스로 한국을 방문한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였다. 그로부터 34년 후 1866년 미국 상선 '제너럴 셔이먼호'를 타고 대동강으로 올라와 평양부근에서 통상교섭을 하며 성경을 전하다 27세에 죽은 '토마스 목사'는 최초의 개신교 순교자였다. 이러한 열정과 희생의 씨앗이 움터 쇄국정책으로 일관하던 정부가 기독교 선교를 허락하는 계기가 되었고, 1885년 4월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고종황제의 윤허를 받고 입국하여 감리교와 장로교를 뿌리 내리게 한 최초의 개신교 공식 선교사가 되었다.

2. 장로교 선교사의 활동과 부흥(1885년~1907년)



한국 최초의 '평양장로회' 신학교를 세운 '마포삼열' 목사

중국에서 「예수성교전서」를 번역하고 서상륜 청년에게 세례를 베푼 후 한국과 만주에서 메서인으로 활동하게 한 로스(J.Roos) 목사는 한국 개신교 선교 공헌자로 소속은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목사이다. 그는 중국에서 1872년부터 활동하였다. 1883년 미국 북장로교회 소속 의사 '헤론'을 비롯하여, 여의사 '엘러스'와 '힐튼' '기일' 목사, '테이비스' 목사 등이 장로교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입국하였으며, 미국북장로회 한국선교사로 '마포삼열(S.A.Moffett)' 목사가 와서 1893년 평양선교부를 설치하고 평양을 한국 최대의 개신교 선교지역으로 육성하는데 공헌하였다. 이 해에는 선교사 공의회가 조직되어 선교사들이 장로교를 치리하다가 1907년 9월 17일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독노회(獨老會)를 조직하고 최초의 한국인장로교 목사를 안수, 배출하고 장로회 신경(信經)을 채택하여 장로교단이 부흥하게 되었다.

3. 강원도내 장로교회 창립(1905년~1950년)

그러나 감리교 선교지인 강원도에는 1905년 철원읍에 처음으로 장로교회가 창립되었다가 즉시 감리교로 편입되었고, 강릉에서는 1935년 일부 성도들이 감리교회에서 분리하여 강릉장로교회를 창립하였으나 일제 말 교회 통합정책으로 사라졌다가 해방된 해 1945년 12월에 재건되었다. 춘천은 1939년 5월 박민식, 김조길 등이 춘천시 소양로3가 박민식 집에서 창립예배를 드림으로 소양장로교회가 창립되었다. 원주에는 1946년 장로교 통합측 평신도 15명이 임재수 목사를 청빙하여 원주시 인등에 원주제일 장로교회를 최초로 창립하였다.

4. 성장하는 장로교회들(1950년~2006년)

장로교인이 강원도에 정착하여도 감리교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시기가 지나 이제는 장로교가 지역별로 크게 성장하고 있다. 강원도내 굴지(屈指)의 장로교회는 춘천권에서 등부증앙(통합:1939년), 춘천제일(합동1939년), 성광(통합1952년), 원주권에서는 제일(통합:1946년), 중앙(합동:1953년), 영강(기장:1959년), 강릉권에서는 강릉제일(합동1945년), 강릉(통합:60년)등 교회가 부흥성장하고 있다.

(다음호 : 성결교회 편)

| 영혼의 양식

새 출발을 위하여 - 아가 3:1-4



김 병 천 목사
(남산교회)

세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에 우리를 위협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위협은 북한의 핵실험. 그렇게 퍼주었는데 돌아온 것은 핵 위협이었고 이것은 실패와 좌절, 분노와 허탈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실패와 좌절, 분노와 허탈을 잘 정리하면 곧바로 맞게 될 희망이 있습니다. 어쩌면 매우 실망스러웠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소망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성경은 한 여인이 실패와 좌절 끝에 마침내 희망을 찾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녀의 실패와 좌절의 원인은 오늘 우리가 겪는 실패와 좌절의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그녀가 그 모든 원인을 정리하자마자 희망과 성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출발을 위하여 우리에게 있는 모든 실패와 좌절의 원인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여인이 실패하고 좌절하게 되는 이유가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침상에서 사랑하는 이를 찾았습니다. 둘째는 길거리에서 사랑하는 이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들에게서 사랑하는 이의 행방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떠났더니 그곳에 그토록 찾아 헤메던 사랑하는 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침상에서 희망을 찾는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침상은 어떤 곳입니까? 가장 편안한 곳입니다. 일어나기보다는 좀 더 눕고 싶은 곳입니다. 그래서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하는 곳입니다. 그런 편안하고 안일하고 나태한 곳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지난 한해 우리의 삶은 어땠습니까? 땀 흘리기보다 좀 더 눕기를 탐했던 한해는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땠습니까? 일찍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을 바라보며 땀 흘리고 눈물 흘리는 시간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이제 우리는 침상에서 떠나야 합니다. 침상에서 보냈던 시간을 정리하자마자 우리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다가올 것입니다.

길거리에서 희망을 찾는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길거리는 어떤 곳입니까? 모두가 방황하는 곳입니다. 방황하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방황하지 말고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한 푯대가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성전에서 우리의 길을 알려줍니다. 예수가 12살 때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예수가 없어졌습니다. 예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는 3일 길을 길거리에서 예수를 찾으며 방황했지만 아무데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성전에 와서 비로소 예수를 찾았습니다. 예수는 성전에 있었습니다.

지난 한해 우리는 어떻습니까? 길거리에서 방황하지는 않았습니까?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나의 푯대로 삼았습니까? 이제는 방황하던 길거리를 떠나 성전에 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망이 성전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희망의 푯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잡아야 합니다.

사람들에게서 희망을 찾는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스스로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피조물입니다. 오히려 경쟁하고 물리치려고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묻고 기기서 희망을 찾으려고 했으니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지난 한해 우리는 어찌습니까?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니 나와 상관없으신 분이라고 여기지는 않았습니까?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의지하며, 권력에 의지하며, 부에 의지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결국 실패하고 좌절하며 분노하던 시간은 아닙니까? 이제 사람에게서 떠나야 합니다. 우리의 지혜와 능력의 주인이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사람을 떠날 때 우리의 참 희망이신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설" 맞이 "사랑의 선물"을 소개합니다.
여선교회 회원들이
정성껏 빚는 "선교 기금" 감자떡입니다.

"강원도 중부 감자떡"
※1봉지(2.2Kg) 10,000원※
※택배로 즉시 배달합니다※
※033)343-7038, 016-343-8105
※계좌: 농협207-02-159747 김기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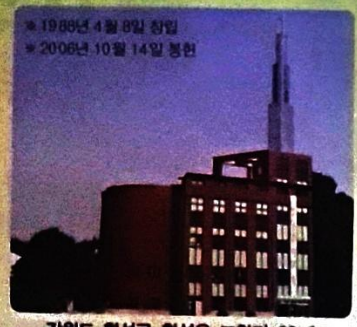
군경 위문품으로! 친척, 친구에게! 여선교회 선교기금사업으로 안성맞춤!



담임 전 용 주 목사

[약력]
•중부교회 개척 및 건축
•감리교신학대학 선교대학원
•협성지방감리사 역임
•36사단 항군종 역임
•필리핀 미전도부족선교
•협성대학 신학연구소이사
•교회성장연구소 전임강사
•협성부흥협의회 사무총장

기독교 대한감리회 중부교회
※1988년 4월 8일 창립
※2006년 10월 14일 봉헌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교항리 63-2
☎033)343-7038, 목사 011-361-3053



삶 자체가 간증입니다

해비타트 사무국장 김승구 권사(산골닭갈비·막국수, 강촌교회) 편



하나님 만나기 이전의 삶

김승구 권사는 9살 때 서울에서 강촌으로 이사와 지금까지 살고 있다. 그가 처음 교회에 나가게 된 것도 이때, 동네의 권사님을 따라 4km나 되는 먼 교회에 다녔다. 그 후 강촌교회가 개척되면서 이곳으로 옮겨 신앙생활을 하였고 중고등부 회장까지 하게 되었다. 하지만 주님을 만나지 않은 상태의 믿음이란 조그만 유혹에도 넘어지게 마련이었다. 군의경에 들어가 술을 배웠고 점차 방탕한 생활에 빠지게 되었다. 군 제대 후 경찰공무원이 되었으나 술로 인한 폭행이 문제가 되어 그만두게 될 정도로 술은 그의 삶에 치명타였다. 암울한 삶을 정리하고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결혼을 택했다. 보육원에 다니던 최영미 집사를 만나 슈퍼를 경영하면서 엄청나게 사업이 번창했다. 하지만 드물게라도 교회에 가던 그의 발길은 끊어지고 점점 술과 벗하는 일이 많아졌다. 그런 그가 강촌번영회 일과 자율방범대를 하면서 조금 수그러드는 듯 했으나 이미 가정은 피폐해져 있었고, 결국 이혼상태에까지 이르렀다. 그때가 6년 전 일이다.

아버지학교를 통한 변화

결혼 파경 직전 이혼서류를 준비하던 중 한 선배로부터 아버지학교에 갈 것을 권유받는다. 평소 선배의 말을 거절 못하기도 했지만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서울의 아버지학교에 참여하게 된다. 1주차, 아버지 영향력에 대해 배우면서 8살 때 돌아가신 아버지의 고통스러웠던 삶과 자신을 사랑해 주셨던 모습이 어렴풋이 떠올랐다. 서울 미대를 다닌 아버지는 6.25때 피난을 못가서 북한군에게 붙들려 강제적으로 몇 차례 선전 포스터를 그려주게 된다. 이것이 화근이 되어 전쟁 후 아버지는 아무런 활동도 할 수 없었고 늘 술에 찌들어 살다가 결국 병으로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셨다. 그런 아버지 밑에서의 고통과 경제적인 압박 등등 김 권사는 아버지학교를 통해서 자신의 상처로 인해 하나뿐인 아들에게 정을 주지 못하는 자격 없는 아버지임을 깊이 알게 된다. 아들은 그가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날이면 방문을 잠그고 자는 척을 할 정도로 아버지를 두려워했다. 아내와 아들의 아픔이 얼마나 컸을까 깊은 회개 속에 새 삶을 살기로 결심하게 된다.

확장되어가는 섬김의 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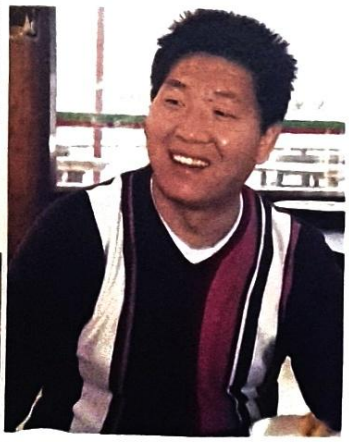
아버지학교 후 하나님에 대해 깊이 알지는 못했지만 그는 이 훈련에 메료되어 전국을 다니면서 봉사하기 시작했다. 옛 생활의 모습은 어전했으나 점차 그 빈도수가 줄어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좋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교회에 열심을 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 그가 술과의 싸움을 극복하게 된 것은 대형교통사고 이후.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 옛 버릇대로 룸살롱에 가려다가 크게 교통사고가 났다. 차는 대파되었는데 그는 하나도 다치지 않는 기적이 일어났고, 이 사건을 통해 술 답배를 끊었다. 후에 IMF로 사업이 안되고 집까지 넘어갈 지경이 되었을 때 비로소 그는 자신이 주님께 올인 해야겠다는 결심을 한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김 권사의 삶을 철저하게 다루셨다. 어느 날 자율방범대를 통해 태국어령의 기회가 생겼다. 그런데 때마침 자신의 멘토 김 장로로부터 독일, 프랑스 아버지학교에 봉사하러 가자는 권유를 받게 된다. 그러나 이미 여행비를 지불했고 놀고 싶은 마음에 갈등하고 있을 때 주님은 만일 자신이 비행기를 탈 경우 하나님을 위해 타겠다고 약속했던 것을 기억나게 하셨다. 결국 손해를 보면서도 여행을 포기하고 프랑스로 향하였다. 여기서도 놀라운 훈련을 받게 되는데 당시 멘토였던 김 장로는 아침 묵상을 통해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과 겸손과 인내에 대해 강조하셨다. 당시엔 말씀의 의미를 몰랐지만 후에 깨닫게 된다. 함께 했던 젊은 장로들의 강압적 행동으로 인해 팀 안에 갈등이 생긴 것이다. 다혈질적 성격의 김 권사, 분을 참기 힘들었으나 인내하라는 말씀이 계속 떠올라 끝까지 참았다. 귀국할 때는 젊은 장로들이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사과하였다. 이 일로 김 권사는 믿음이란 순종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

김 권사는 후에 교도소와 각 지역의 아버지학교를 섬기면서 숱하게 많은 영적 체험을 하게 된다. 그러면서 점점 강촌의 망나니가 기적과 같이 새사람으로 변화되며 어둠을 방황하던 한 인생이 빛에 거하는 역사를 몸소 경험한다. 그에 대해 강촌교회 김성호 목사는 동네사람들이 신기해할 정도로 엄청나게 변화되었고 교회 안에서도 신실한 주의 일군이라고 칭찬한다. 김 권사는 아버지학교 은등은 삶의 실천은등이며 그 우선순위는 교회라고 하며 교회중심의 탄탄한 일군으로써 한 가정의 믿음의 가장으로 빛 되신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지금도 노력하며 기도하고 있다고 조심스레 말한다.

해비타트 사무국장으로의 섬김

김 권사는 많은 은혜를 받으면서 토요일과 주일 장사를 그만두고 주님을 위해 일하고 싶다고 기도하였다. 그러던 중 성시신문에 난 해비타트 사무국장 구인광고가 눈에 들어왔다. 봉사직이라 주저하는 그에게 아내 최영미 집사가 적극 권했다. 이런 분이 이미 내정된 상태였으나 김 권사에게 양보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면서 봉사의 기회가 주어졌다. 해비타트 사무국장이 된 그는 해비타트 주체는 봉사자들이 아니라 혜택을 받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위해 집 주변을 정리해주고 모든 행정을 입주자 위주로 돌아가게 하는 등 최선을 다해 섬기고 있다. 그리고 해비타트 봉사자들 중 70%나 되는 불신자들을 품고 복음을 전하기도 한다. 그의 수고와 땀 때문일까? 해비타트도 점점 김사힘 일들이 늘어가고 있다. 이사들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새로운 땅을 매입, 또 수자원공사가 이 사역을 적극 돕는 등 좋은 일들이 일어났다.



김 권사의 삶이 이렇게 변하자 과거 그를 피했던 선배들이 요즘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느냐고 물어본다고 한다. 변화된 삶의 간증. 그는 지금도 틈만 나면 그의 부인 최 집사가 경영하는 산골막국수에서 맑고 환한 웃음으로 손님들을 맞이한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라며 두 눈가에 감사의 눈물을 담고서 이젠 주님의 증인으로 밀알처럼 썩어지듯 살겠다는 그의 소망의 나래가 펼쳐지는 것을 본다.



[취재 권기찬, 사진 김미경]

산골
닭갈비 · 막국수
80인 단체석 완비 | 대형주차장
강촌역에서 강촌방향 80m(좌측)
김승구 권사 · 최영미 집사 (강촌교회)
☎ 033) 261-4521 H · P 016-9347-0025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창조와 신용을 제일로 하는 조경전문건설업 면허업체
강원농원조경공사
조경설계 및 시공전문 | 조경 식재공사업 |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업
♣ 제배잔디판매
♣ 정원공사, 주택, 별장, 가든 조경공사
♣ 씨드스프레이, 자연석 쌓기
♣ 각종 묘목, 생산판매 전문
♣ 제배 잔디 생산, 판매 전문
♣ 각종 관상수/조경수 전문
춘천시 근화동 266-2(강원예식장 뒤) 대표 임 희 방
☎ 254-8986 / FAX 255-8981(야간:254-5930) / H · P 011-369-1278

일어나 함께 가자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신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하여 십자가를 견디사,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왕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히12:2)

보배로운 이 믿음을 얻어(벧후1:1; 유1:3; 엡2:8)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고후5:17; 엡2:10; 벧전1:3),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 믿음의 길을 걷도록(엡2:10; 딛2:14) 2007년으로 들어서게 하셨다.

작심삼일(作心三日)은 마음을 단단히 먹기는 했지만 사흘만 지나면 그 결심이 흐지부지 되고 만다는 뜻이지만, 사흘을 두고 생각하고 생각한 끝에 비로소 결정을 보았다는 신중성을 의미하는 뜻도 있다.

"푯대를 향하여 믿음의 길을 함께 걷자"

새해를 맞이하며 적어도 우리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야 한다(롬12:2; 엡5:17). 다니엘은 이렇게 기도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돌이켜서 우리의 불법들에서 떠나 주의 진리를 깨닫고자 하여 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였나이다."(단9:13) 우리의 일들에 대하여 주의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전7:14; 벧전2:2; 빌4:8). 깨닫게 하신다(마1:20; 단2:29). 우리는 믿음을 얻은 자들이기에 자기의 뜻을 세울 수 없다(약4:13-17; 고후5:14-15). 그 믿음으로의 돌이킴(회개, 고후7:10-11)과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오히려 고침을 받게 하며(히12:12-13),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빌3:13-14)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일을 듣지 않았는가? "그러나 다니엘은 왕이 정해준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기로 마음속에 작정하였으므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내시들의 우두머리에게 간구하니 이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인도하사 내시들의 우두머리에게 은총과 친절한 사랑을 받게 하시니라."(단1:8-9; 잠16:13; 빌2:13) 당신은 주님 안에서 어떤 선한 일들 가운데서 걸을 것인가(잠16:1,3; 빌2:13)? 당신과 함께 걷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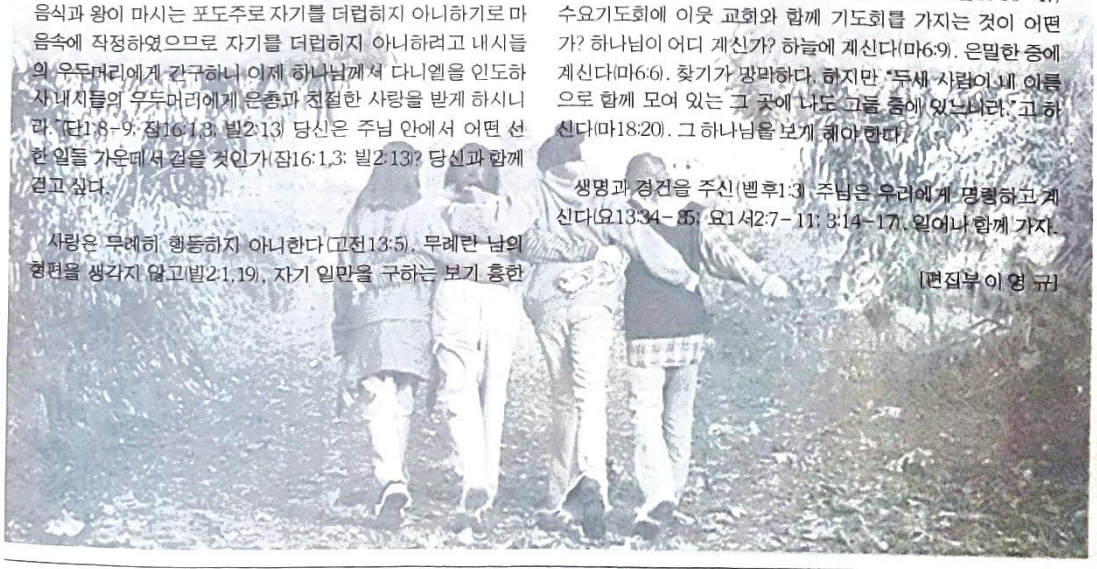
사랑은 무례히 행동하지 아니한다(고전13:5). 무례란 남의 형편을 생각지 않고(빌2:1,19), 자기 일만을 구하는 보기 흉한 짓을(롬1:27) 하므로 수치를 당하는 일이다(눅14:7-11).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모든 것을 보시니, 보라 매우 좋았었다(창1:31). 자신이 행하는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가? 눈멀어 안약을 발라 보게 하는 형편이 아닌지(계3:17-18; 요9:1-41) 생각해 보라. 세해엔 그리스도인으로서 수치를 당하지 않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지 않게 하라. 모든 일에서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리를 빛나게 하라(딛2:5,10).

모든 사람을 존경해야 한다(벧전2:17). 하나님께서는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요 화평의 창시자이시다(고전14:33). 질서가 있다. 국민으로 권세 있는 자들을, 부하 직원 된 자로 상사 직원을, 아내 된 자(남편 된 자)로 존경하라(벧전2:13-14, 18; 3:1-7). 존경하는 이 자체만으로도 특유한 자가 될 것이다.

어느 목사가 게 교회 증심의 극단적 이기주의가 교회들 속에 판을 치면서 형제의식은 사라지고 교회의 원 모습이 파괴되는 아픔을 토로하며 한 교회 한 마음 기도 비전을 제시했다(춘천성시신문 97호 06년12월 1일자). 당신도 그와 같은 아픔이 있는가? 그와 같은 비전을 보았는가? 이 일의 입증을 위해 주일 오후예배는 이웃 교회로 흩어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떻겠는가? 신학교를 마침과 동시에 20년 전 교회를 개척했을 때 이런 예배들을 드린 적이 있다. 어느 목사님은 미리 언질을 주고 방문 했다면 떡과 음식을 준비하고 영접했을 것이라고 하셨다. 그때의 감동을 잊을 수가 없다. 주의 만찬을 함께 해 보는 것이 어떤가? "우리의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를 함께 나눔이 아니냐? 우리가 부수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나눔이 아니냐? 우리 많은 사람이 한 빵이요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그 한 빵에 참여하는 자이기 때문이라."(고전10:16-17) 수요기도회에 이웃 교회와 함께 기도회를 가지는 것이 어떤가?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늘에 계신다(마6:9). 은밀한 중에 계신다(마6:6). 찾기가 망막하다. 하지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여 있는 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고 하신다(마18:20). 그 하나님을 보게 해야 한다.

생명과 경건을 주신(벧후1:3)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다(요13:34-35; 요1서2:7-11; 3:14-17). 일어나 함께 가자.

[편집부 이 영 규]



예 향

미 항공우주국과 믿음

1960년대 아폴로 우주계획에 참여해서 일할 때 과학자들은 정부와 우주 정거장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 우주 공간에 띄워 올릴 수 있는 로켓을 만들기 위한 기술은 아직 개발도 안 된 상태였지만, 미 항공우주국은 충분한 시간과 재원을 주기만 하면 가능하다고 믿고 있었다. 10년 후 그 일은 정말로 가능하게 되었다. 이처럼 과학만을 믿는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큰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일진대 우리는 얼마나 더 큰 일을 이룰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명령 하나 하나는 다 약속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들을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결단하고 그 말씀 위에서 행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편집부]

<후원자를 찾습니다>

농 협 301037-52-193771 조영춘
Y신협 04073-13-016959 조영춘
1구좌 5천원, 2구좌 1만원
(성시화를 위한 구독헌금에 동참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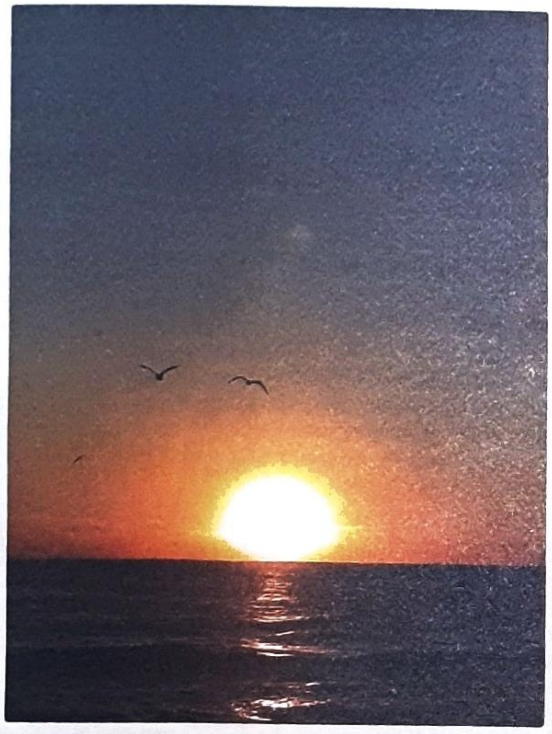
[성시화 후원자 명단]

강촌감리교회	나눔성결교회
늘사랑 교회	동신장로교회
순복음춘천 교회	순복음하나교회
사임중앙교회	소양성결교회
소양제일성결교회	세인교회
새순성결교회	순복음열린 교회
석사감리교회	온누리장로교회
예광침례교회	주천양 교회
중앙장로교회	춘천일신교회
춘천동부교회	춘천교회
춘천명성교회	춘천북부교회
춘천사랑의교회	춘천안디옥교회
춘천중앙감리교회	평화감리교회
춘천제일장로교회	춘천제일감리교회
한빛장로교회	천일현수막
헤비타트춘천지회	앤투어
쏘인테리어	디티피아
강원기독문화연구소	김 기 태
국민일보춘천지사	김 준 언
김 길 홍	김 현 철
김 영 명	민 병 업
박 동 환	성 기 온
신 성 균	신 종 철
안 미 애	안 정 숙
엄 필 남	오 홍 수
이 국 정	이 용 규
이 원 기	이 원 영
이 판 호	이 학 규
이 병 연	장 기 영
정 찬 복	조 은 제
최 경 용	최 상 호
최 치 광	한 희 현
황 병 찬	허 순 영
홍 성 운	홍 순 복





포·토·에·세·이



시. 김 용 배 장로(소양성결교회)

쉼 없는 샘물

은혜의 하나님
우리로 주님의 은혜로
쉼 없는 샘물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구원의 하나님
우리가 음침한 골짜기에서 헤맬지라도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축복의 하나님
우리에게 바람이 일어나듯
일으켜 세우시되 높이 세워주시옵소서. 아멘.

능력의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던지 응답하여주시옵소서.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도되어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옵소서. 아멘.

생명 되신 하나님
우리가 썩어져 가는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어
저들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름다운 이야기

추억여행을 떠나세요.



한국장로신문에서 "서른 두번 결혼한 한 여자 이야기"가 소개된 것을 읽었다.

전주시 가까이 한 농촌에 사는 이 여자는 25살 나이에 한 남자를 만나 뜨겁게 사랑하고 결혼하였다. 1년이 지나 아이를 낳고, 첫 아이 백일잔치를 하던 날 시댁식구들과의 갈등과 충돌 때문에 이혼 결심을 하게 되었다. 짐을 싸고 아기를 안고 일어서는데, 그 아기가 사정을 아는 듯 그렇게 목 놓아(?) 울더라는 거다. 그 아이의 울음소리 때문에 이혼 결심이 무너져 다시 남편과 살기로 결심했다.

그 여자는 생각했다. 그렇게 좋아서 결혼했고, 결혼하던 날 "세상이 다 변해도 우리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말자"고 새끼손가락 걸고 굳게 맹세했는데도 1년 만에 그 맹세 그 마음이 힘없이 깨어지는 것을 보고 이게 인간의 마음이요 의지이구나 생각하게 되었다. 그래서 남편과 같이 지혜를 모았다.

결혼 결심, 그 사랑의 결심은 1년은 갈 것 같으니 매년 결혼식을 올리자고 결정했다. 해마다 결혼기념일이 되면 주례와 축하객은 없지만 마음을 다시 가다듬고 실감이 나도록 신랑신부 예복을 입고 면사포를 쓰고 서로 맞절을 하는 것이다. 서로 사랑을 고백하고 다음엔 신혼여행을 가는 마음으로 외식을 한다고 한다. 금년 나이가 57세 이니까 25세부터 32번 결혼을 한 것이다.

첫사랑을 잃어가는 부부에게 상담가들은 "추억 이행"을 권한다. 그들이 처음 만났던 곳, 사랑을 고백했던 곳, 프러포즈 했던 곳, 사랑의 아름다운 추억이 있던 곳을 다시 돌아보면서 첫사랑의 감회를 기억해내고, 첫사랑의 언약을 기억해 내는 것이다.

요한 계시록 2장 4절-5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Remember) 회개하여(Repent) 처음 행위를 가지라" 하였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은 기억하고 회개하는 것이다. 무엇 때문에 내가 사랑의 언약에서 멀어져 갔고, 그 결단에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해 내는 것이다. 그리고 회개하는 것이다. 회개는 내가 서야할 그 자리, 내가 있어야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에 일어나서… 돌아가니라"(눅 15:20)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한 해가 시작되는 이 계절에 주님과의 사랑의 추억 여행을 떠나보는 것이 어떨까?

행사안내

▣ 춘천YWCA ▣

♣ 성진꽃꽂이 강좌
1. 일시: 2월 23일(금) 오전10시~12시, 3개월 과정
2. 인원: 15명
3. 문의: 춘천 YWCA(☎ 254-4878)

▣ 월드비전 ▣

♣ 아동방학교실 개강식
1. 일시: 1월 3일(수) 11:00~12:00
2. 장소: 복지관 3층강당
3. 내용: 1월 3일~2월 16일까지 방학교실 실시(영어, 미술, 전래놀이, 종이접기, 사회성발달 훈련, 새소식반 예배 등)

♣ 청소년방과후교실 개강식
1. 일시: 1월 8일(월) 18:30~19:00
2. 장소: 복지관 청소년공부방
3. 내용: 주 5일(월~금) 중학교1,2,3학년 및 고등학생반 운영(영어, 수학, 독서지도)

♣ 아동방학교실 야외활동
1. 일시: 1월 26일(금) 10:30
2. 장소: 눈썰매장

♣ 청소년겨울여행
1. 일시: 1월 30일(수) ~ 2월 1일(목)
2. 장소: 홍천대명스키장
3. 대상: 등록청소년 25명
4. 문의: (033)254-7244

▣ 춘천기독교연합회 ▣

♣ 신년교례회
1. 일시: 1월 3일(수) 11:00
2. 장소: 두산리조트(다이아몬드홀)
3. 문의: 256-1260

춘천성시신문
편집위원 : 박 상 호 조 영 춘
최 영 조 최 상 도
정 재 호 이 영 규
권 기 찬 김 춘 배
김 미 경
원고투고 및 광고 문의
200-080
춘천시 운교동 174-3 Y신협3층
춘천성시신문사
대표전화 : 033)256-1260
FAX : 033)257-1260
011-361-2004
010-7347-9004
010-3118-9355

춘천교역자연합회
춘천교역자연합회에서는 "사모합창단"을
창단하고자 합니다.
지역교회 사모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목사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갖고 기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대상: 음악을 사랑하고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길 원하는 목회자사모
※ 연령: 제한없음
※ 문의: 017-378-2261(박영식 사모)

세경볼링센타
매주 토요일 오후2시~3시30분 무료강습


위치 춘천시 석사동 694 세경상가(지하)
대표 이 용 운 집사
(온누리장로교회 · 춘천시볼링협회 전무이사)
☎ 261-6184~5 / 011-9969-6702 cafe.daum.net/ccbowling

사 설



새로운 한해를 시작하면서…

박 상 호 목사
본보편집장 춘천제일장로교회 담임

우리는 자연스럽게 새로운 한해를 맞이하고 지나간 날들에 대한 아쉬움을 갖는다. 혹 업청난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는 않았는가?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에 연연하지 말아야 한다.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되는 순간 그때는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심정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럴 때는 길을 걷다가 거리에서 10원짜리 동전을 못보고 지나친 것으로 간주하면 좋을 것 같다. 기회를 놓쳤거나 진행하던 일을 실패한 것은 될 수 있는 한 빨리 잊고 새로운 것에 도전해야 할 것이다.

여기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실린 "승리자들의 다섯 가지 계명"을 소개한다. 1.실패의 기억을 오래 남겨두지 말라. 2.자기비하는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다. 3.사업은 위기를 즐기는 게임이다. 그러므로 항상 실패를 맞을 준비를 해두어라. 4.실패가 예견된 사업이면 빨리 포기할수록 좋다. 5.실패는 마지막이 아니다. 새로운 출발점일 뿐이다.

북한은 핵 실험을 했다. 정책적으로 성공일까? 실패일까? 우리나라의 핵신도시, 사학법, 실패인가? 성공인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등 검토할 필요하다. 교회들도 외형적으로는 소란을 떨지만 내용적으로 실패인가? 성공인가? 일단 발표된 내용으로 보면,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1200만이었으나 줄어서 지금은 850만 정도라고 했었던가? 그러나 그 숫자의 정확성이 문제가 아니라 실상은 민족 복음화라는 정책의 실패가 문제이다. 예배당이나 크게 짓고 교육관만 요란하게 꾸며 놓으면 무엇 하겠는가? "아무개 집사님 가정이 금번에 이사 오셔서 우리교회 등록했습니다."도 중요하지만 "아무개 씨 가정이 새롭게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 등록하셨습니다."가 더 중요하다.

금년은 우리 한국기독교계가 평양대부흥 100주기를 맞는 해이다. 1907년도에 평양에서 일어났었던 회개운동과 기도의 불길 성령의 역사로 인한 대 부흥이 다시 한 번 일어나 이 민족을 변화시키기를 원한다.

새해에는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서기를 위해서, 그리고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자.

마28:19-20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찌어다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다. 교회마다 이 같은 은혜의 축복이 있기를 원하며, 국민 개개인마다, 가정마다, 기업과 직장마다,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에도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시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한다.

❀ 알려드려요

◆예스컴(구 예수사람운동)
1) 고3 영성훈련
일시: 1월 3일(수) ~ 26일(금) 월-금, 오전9:00-12:30
장소: 베드로선교센타 5층 강의실
내용: 로마서 성경공부, 기초신앙훈련
강의: 선교,창조과학, 심리 등 회비: 45,000원
문의: 한승연 간사(016-369-6994)
2) 목동모임
일시: 1월 6일(토) 오후6시30분 장소: 베드로선교센타 5층 강의실
3) 춘여고 엘리에셀 친양 집회
일시: 1월 13일(토) 오후 6시 장소: 동부교회 소예배실
4) 중국단기선교
일시: 1월 31일(수) ~ 2월 8일(목)
문의: 244-5400 [cafe.daum.net/holykids]

◆한국대학생선교회(C.C.C.)
사무실: 254-5776

◆예수전도단
1) 춘천 회복을 위한 회요모임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6:30 장소: 춘천동부교회 소예배실
대상: 연령, 교단을 초월한 모든 그리스도인
※1월 2일 에배와 기름부으심2
※1월 9일, 16일 제자도 1, 2
※1월 23일 성령세례 ※1월 30일 권리포기
2) 브르스길라(중보기도)모임
춘천과 예수전도단을 위한 중보기도 모임
시간: 매주 월요일 오후 7시-9시
장소: 춘천지부 사무실(한신아파트 맞은편)
대상: 가정주부(관심있는 자매님)
3) 강원유스캠프
일시: 2007년 1월 4일(목)-6일(토)
주제: Holy Fire 롬12:1-2 강사: 우성환, 박세훈 간사
장소: 둔내유스호스텔 회비: 5만5천원
문의: 252-1126 [http://town.cyworld.com/ccywam]

◆IVF
1) 아볼로 성경학교
일시: 1월 1일(월) ~ 13일(토) 장소: 구) 시암교회(사암리)
대상: 대학 1학년 이상
2) 섬김이 훈련
일시: 1월 8일(월) ~ 20일(토) 장소: 춘천IVF회관
대상: 대학 2학년 이상

3) BLC 말씀과 삶 훈련
일시: 1월 17일(수) ~ 20일(토)
장소: 구) 시암교회(시암리)
대상: 대학 3학년 이상 문의: 252-5200

◆어린이전도협회
1) 3일 클럽
일시: 2007년 1월 2일(화)-6일(토) 4박5일 숙박
장소: 석사감리교회
2) 2007년 새학기 강습회
일시: 1월 15일(월),16일(화),18일(목) 3일간
※오전반 9:30-1:00 / 저녁반 6:30-10:00
장소: 춘천제일장로교회
등록금: 1인당 15,000원(간식 핸드북 제공)
※당일 등록시 1인당 20,000원
등록마감: 1월 12일(금) 까지 1,2,3단계별 선착순30명
문의: 253-1413, 242-8291 [http://cafe.daum.net/cefch/]

◆JDM
1) 기독교사 수련회
일시: 1월 2일(화)~5일(금) 장소: 세계제자훈련원(WDTI)
2) 강원권 청소년 수련회
일시: 1월 16일(화)~19일(금) 장소: 세계제자훈련원(WDTI)
3) 한국간사수련회
일시: 1월 22일(월)-26일(금) 장소: 세계제자훈련원(WDTI)
문의: 252-3192 / 011-9058-3192

◆GBT성경번역선교회
1) GBT 춘천지부 전체총회
일시: 1월 11일(목) 오후7시
2) 26회 캠프 위클리프(국내)
일시: 1월 15일부터 3주간
장소: 대전침례신학교
3) 26회 캠프 위클리프(인도네시아 파푸아)
일시: 1월 17일부터 3주간
장소: 인도네이사 파푸아 센타니
문의: GBT춘천지부 033)252-3927
김대원 간사 011-367-6085[033@gbt.or.kr]

◆태권도선교 시범단 훈련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 9시~11시
장소: 경원대태권도장
문의: 263-6022, 011-9791-6055

◆몸소리워십댄싱선교단 훈련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 8시~9시
장소: 경원대태권도장
문의: 263-6022, 017-374-24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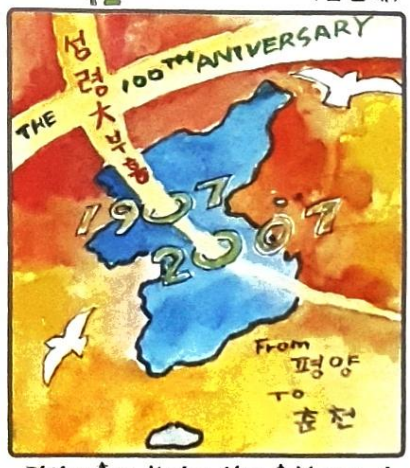
◆구봉산 산기도회
일시: 매주 수요일 오전11시, 금요일 오후10시
장소: 구봉산 기도공원(만천리 공무원 연수원 뒷산)
문의: 256-7579 018-315-7579 지광이선교회
(신광교회 유근일목사)

◆UBMK(올란바트르 선교사 자녀학교)
헌신한 교사 및 후원자를 찾습니다.
문의: 이영규 목사 019-9224-0690, 243-0691

◆성시화운동본부 총회
일시: 1월 19일(금) 오전 11시 장소: 소양성결교회
문의: 256-12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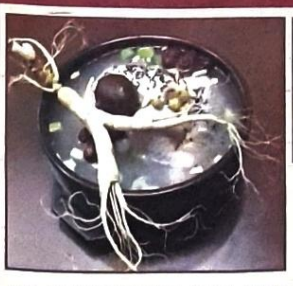
성시화 2

〈김 춘 배〉



평양부흥의 불길이 성시 춘천까지…!

장뇌삼과 각종 한약재를 첨가한! 웰빙 삼계탕!





장 웰빙 삼계탕 원

※대형 주차시설 완비
※각종모임을 위한 단체 연회석 완비

예 약 문 의
(033)254-9191 · 9199
H·P 011-9795-5570

◆메뉴 : 장뇌삼삼계탕 · 인삼 삼계탕 · 닭도리탕 · 인삼튀김

춘천시 후평동 시내버스 종점에서 소양댐 방향 500m지점

춘천에서 전국으로, 세계로…
예수 향기를!!
교회현수막 전문
www.chunill.com
1001design@hanmail.net
"천일디자인"만 쳐도 됩니다.
천일기획(디자인)
T.255-5722 F.256-5722

MPS 11기 수료식



MPS 11기가 12주간의 훈련을 마치고 12월 2일(토) 오후3시 베드로선교센터 5층 추수홀에서 수료식을 가졌다.

2007 목회 세미나



한국교회 대부흥 100주년을 기념하는 2007년 신년목회 준비세미나가 12월 5일(화) 오후3시 주향교회에서 열렸다. 교회갱신을위한목회자협의회(강원지역총무:이병희목사)가 주최한 이 세미나는 교회가 세상에 희망과 감동을 주는 영적공동체로 발전하고자 마련되었다.

GBT 창립2주년 기념예배



GBT 춘천지부는(대표:권기찬목사) 12월 6일(수) 오후 7시에 담교회에서 설립 2주년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이용남 선교사(WMC대표)는 이 땅에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복음의 씨앗을 심었던 선교사들과 한국선교역사에 대해 강연하였다.

제8회 강원청소년 영화제



강원도교육청이 주최하고 춘천YMCA에서 주관하는 '2006 제8회 강원청소년 영화제' 시사회 및 시상식이 12월 10일(일) 오후1시30분 국립춘천박물관에서 열렸다. 이날 대상은 "WHO AM I" 원주여자중학교가, 성수여자고등학교는 훈민정음상을, "Run to pattern"의 춘천여자고등학교가 우수상을 수상했다.

사랑의 온차 전달



(사)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강원지회(이사장:김주환목사)는 12월 15일(금) 오전 11시 순복음춘천교회에서 사랑의온차를 춘천과 화천 지역의 군부대에 전달하였다.

성탄트리점등식



춘천기독교연합회(회장:이원호목사)가 주최한 성탄트리점등식이 12월 9일(토) 오후5시 중앙로터리에서 열렸다. 이날 이광준춘천시장을 비롯한 춘천지역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구주로 오신 아기예수의 탄생을 축하하였다. 성탄트리는 2007년 1월까지 춘천시를 환하게 밝히게 될 것이다.

'사랑의 집' 입주식



해비타트춘천지회와 K-Water소양강댐관리단이 공동으로 지은 '사랑의집' 입주식이 12월 20일(수) 오전 11시 신북읍 천전리 189-2번지에서 열렸다. 소양댐관리단이 7천만원을 지원하고 해비타트춘천지회가 기술지원으로 천전리에 1세대, 율문리에 장애우를 위한 집 1세대가 각각 건축되어 따뜻한 겨울을 보내게 하였다.

군복음화 찬양대회



(사)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강원지회(지회장:박인관목사)는 제14회 군복음화 찬양선교대회를 12월 9일(토) 오후6시 석사교회에서 개최했다. 이날 군복음화의 비전을 품고 군부대 교회들인 가나안, 금성, 불기둥, 산돌, 선진/언약, 성분, 성실, 임마누엘교회와 52탄약대대 군인형제들이 참여하여 하나님을찬양하였다.

2007 TW 100인 지도자 모임

세계변혁운동(TW,대표:루이스부쉬목사)은 12월 4일(월)~8일(금) 분당 할렐루야교회에서(담임:김상복목사) 100인 교계 지도자들을 초청하여 2007 세계변혁운동 서울국제대회(한국대표:황성주박사)에 대한 10대 과제를 논의하였다.

평생교육원 개원식



평생교육원 인재한국(원장:김성호목사) 개원예배가 12월 11일(월) 오후2시 와이신협3층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시민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로 허가받은 본원은 지역사회 열린교육의 장으로써 다양한 프로그램을 펼쳐 각 계각층의 시민들의 배움터가 될 것이다.

원종국목사 감독추대 후원의밤



원종국목사 동부연회 감독추대 후원의 밤이 12월 16일(토) 제일감리교회에서 열렸다.

2006년 청소년 어울마당



춘천시가 주최하고 춘천YMCA에서 주관한 '2006 청소년 어울마당'이 12월 16일(토) 춘천 지하상가 이벤트홀에서 진행되었다. 청소년 가요동아리의 공연, 댄스, 청소년만화등아리연합회 학생들의 크리스마스카드 전시회, 크리스마스트리 만들기 등을통하여 청소년들과 춘천시민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시간을 가졌다.

교경협의회 위문품 전달



춘천시 교경협의회(회장:원종국목사)는 성탄을 맞이하여 12월 18일(월) 오후2시 춘천경찰서에서 각 지구대 전·의경들에게 사랑의 위문품을 전달하였다.

인도비하르선교의 날



인도비하르선교회(회장:김종호목사)는 12월 20일(수) 오후7시 효자교회에서 비하르선교의 날 행사를 가졌다. 이날 인도 이영길선교사는 과거 현재 미래의 비하르선교에 대한 비전을 나누고 기도와 뜨거운 동역한 분들과 함께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좋은 건축가(설계)와의 만남

건축물의 품격이 달라집니다.
귀하의 품위가 돋보입니다.



건축설계 · 건축관리전문회사 / ISO 9001 인증

■ 건축설계 · 공사감리
■ 건축사업계획 및 사업성 검토
■ 법원감정업무(공사비, 하자소송)

대표이사 허 민 구 장로
HP 011-369-9200

(주)형제K종합건축사사무소

강원도 춘천시 효자동 680-12(4층) 전화 033-243-0188~9

